

교차로

한·티 교류협약의 인도방문

홍선님(중국 사 주지)은 한·티 친선교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8일 출국했다. 스님은 티베트의 풍광을 답사하며 카르마 캄렛유석스님과 동행하는데 인도방문중 티베트왕달라이라마와 단독대담을 갖고 한국과 티베트의 불교교류에 대해 폭넓게 의논한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아시아 미술초대전 출품

월경님(대한 불교법화종 부산 교구총무원장)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한국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서 전시되는 '95아시아 미술초대전에 초대작가로서 서예작품을 출품한다. 전시 개장식은 일본, 중화민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제명작가들이 대거 초청된다.

교육원 교육국장에게 임명

허주님(부산 교구총무원장)은 지난 4일자로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으로서 임명받았다. 허주님은 불교사 교무, 월간 '불교' 편집주간을 역임했다.

대만서 초청 전시회 협의

성문님(화가)은 2월 25일 대만을 방문, 홍콩 대만에서의 초청 전시회를 협의하고 3월 2일 귀국했다.

지역노인 효도잔치 열어

원명님(구룡산 웰리스 주지)은 지난 3일 일일차침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12일 오후 4시 청주에송문문화관에서 제3회 효도잔치를 열고 지역 노인들을 위로했다.

관내 학생에 장학금 전달

곽정출의원(민자당, 불교신도회장, 국회의원)은 지난 2월18일 부산시 서구 토성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자신 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명장학회 제3차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관내 중, 고, 대학생 4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4주년

김정태씨(부산 불교실업인회 회장)는 14일 오후 6시30분 마리나 센타 4층 마리나 홀에서 창립 4주년을 맞아 지역 스님과 기관장, 불자들을 초청 기념회를 봉행한다.

'민족발전전략' 출판기념회

장기표씨(21세기 사회발전 연구위원장)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저서 '자주추진시대 민족발전전략'을 출간

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한국정치 선진화' 심포지엄

안동일변호사(제가불자연합 상임의장, 4월회 회장)는 4월혁명 35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3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정치의 선진화 - 개혁정당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자민연 청주갑 지구당 창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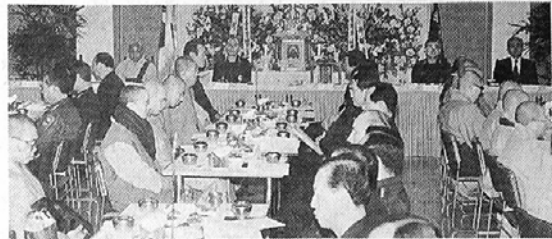
김진영의원(충북청주 갑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문화체육공보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새로이 출범한 자유민주연합(가칭)의 청주갑 지구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3월14일 오후 2시 충북예술회관에서 청주갑지구당 창당을 한다. (사무소) (0431) 221-0041, 55-5007

연꽃게의 만들기 세미나

정판수씨(불교회 회장, 뉴실크로드제과 대표)는 16일 광화문에서 불교회 정기회의를 열고 연꽃게의 만들기 세미나 겸 시사회를 갖는다. 회의에 일반인도 참석, 시사회할 수 있다.

국제불광회 한국지부 결성논의

이인옥씨(대만 국제불광회 문화총회 부부서장)는 지난달 20일 귀국하여 국제불광회 한국지부 결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씨는 부친 칠순잔치에 참석하러 3월10일 대만으로 돌아왔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서울 경승 기원 대법회

서울시지방경찰청(청장 안병욱)은 지난 6일 오전 7시30분 경찰청 1층 구내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서울 경승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해동화엄 강의에 일본학계 주목

김지건(정신문화연구원)박사가 일본 동경대학 문학부 객원교수를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했다. 김박사는 또한 동양대학교 대동문화대학에서 '경허당 산고'를 강의, 한국불교를 일본에 소개했다. 김박사는 오는 20일부터 정신문화연구원원에서 신라 최치원의 사산비명(四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박물관장 홍윤식 △과학관장 강태원 △보건의료연구원장 김경태 △연습관리소장 오정수 △외국어교육원장 김경태 △기숙사장 김인덕 △체육관장 조영석 △원인교학부장 정승식 △총무처장 최창선 △교육방송국장 윤병대 △공

내일을 여는 불자 아이들에 꿈과 불심 심어

조선·동아 신춘문에 당선 정임조씨

"부모나 친구, 그 밖의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지난 93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동시부문에 (대왕암)으로 당선되면서 문단에 발을 들여놓은 정임조씨(월간 '동쪽나라' 편집부). 정씨는 이어 (우리들의 강강술래)로 올 95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동화부문에 당선되면서 유려한 문체로 동시부문과 동화부문을 모두 석권한 주인공이다.



'대왕암' 등 시 150편 모아 곧 발간

연경이 아이들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나무, 하늘, 들꽃, 꽃들이 모두 제 친구들이었거든요"

일상적인 생활과 자연에서 소재를 찾는다는 정씨는 그러나 흔히 쓰이는 소재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었다는 문학도적인 오기도 대단하다.

93년 당선됐던 동시 '대왕암'이 그 대표작이다. 경주 문무대왕 수증왕릉인 대왕암을 소재로 선택한 것도 독특하지만 고기잡이 떠난 아버지의 무사함을 비는 아이의 마음을 석굴입과 감은사, 부처님동 불교적 색채를 통해 간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씨는 어린이 포교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어린이 불교잡지와 같은 매체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단청이나 사천왕 같은 것은 아이들이 얼핏 보기에 무서움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동화나 사를 통해 이런 것들을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면서 불교를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정씨는 "불교는 우리의 민족정서에 가장 가까운 종교이기도 하지만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근본이기도 하다"는 불교관을 밝혔다.

올해 신춘문에 당선작 <우리들의 강강술래>에서 어린 주인공 '참'이를 통해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냈던 정씨는 "미화하기 보다는 삶의 장면을 그대로 존중하여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라며 꾸밈없는 삶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올해안으로 동시집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씨가 그동안 쓴 작품은 대략 1백50여편. 그중에 불교적인 작품은 15편 정도. 그러나 글로서 불교사상을 녹여 내 포교에 앞장서고 싶다는 정임조씨는 벌써부터 설레임으로 행복해 한다. <한명우 기자>

계시판

▲수련생 모집=음니선원(원장 태관)은 심신을 강화하고 심성의 본체를 깨달아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한 기공명상 수련생을 모집한다. 3단계 수련과정에 오전, 오후 반 수련시간이 있다. (02)765-5387

▲실천승가회 사무실=지난 3일 종로구 가회동 31-13번지에서 인근 177-10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44-1593

▲해인사 장경연구소=서울 사무소를 용인구 한남2동 683-139번지로 이전했다. (02)797-0585

▲신입생 모집=청주불교대학이 1년과정의 불교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4일까지이며 원서교부 및 접수는 충북불교문화원에서 한다. (0431)273-5866

고운사, 부석사, 직지사, 범주사 등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산사에서 옛선사들의 승결을 운몽으로 느끼며 스님의 법음속으로 너와 나의 실체를 잊은 무아의 경지를 경험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범이)가 항상 믿고 따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생활속으로 전하는 중요한 포교의 참여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80년 창립된 국회직원불교신도회는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회사무처내에서 묵묵한 신행의 터를 닦으며 1백 80여명 회원을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해 왔다.

국회의 회기때를 제외하고 1년에 4~5회 사찰순례법회를 실시, 전국 요산요수의 유명사찰중 그들의 발길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자연스런 마음의 융화를 가져와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가족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실 국회사무처라는 직장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활동상에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신심으로 이를 극복, 최선을 다해 모임을 이끌고 있다.

현재 국회법당전법을 추진 준비 중인 국회직원신도회 이범이회장(국회 예결산특별위 입법심사관)은

"그동안 큰스님을 모시고 싶어도 법문을 들을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 신행활동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고 말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심신을 닦을 국회법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직원 불교신도회는 공무원사회에서의 어려움을 신행생활로 녹이며 하나된 팀웍으로 움직이고 있다.

불교도서대어, 경전보시, 경각지 포교, 등 여실한 신행활동으로 직급을 통한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공무원사회에서의 어려움을 녹이고 하나된 팀웍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이은자 기자>

탐방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의사당내 법당 만들기엔 전력 80년 창립, 매월 2회 '정각'誌 발행

합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1백2일간의 강원도 통명 학가사에서 상원사 적멸보궁, 월정사로 이어진 사찰순례 일정에 올라 법문과 참선 정진, 회원간 마음의 대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활동은 회원들간의

이러한 모든활동은 회원들간의

이러한 모든활동은 회원들간의

이러한 모든활동은 회원들간의

이러한 모든활동은 회원들간의

이러한 모든활동은 회원들간의



광복 50주년 기념 민족통일기원 천수천안 관음송가

자유평화 행복을 전하는 삼보합창단에서는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대화합과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천수천안 관음송가 전국승회공연을 마치고 금번 서울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당 흥겨운 민족의 잔치에 함께 어울려 통일대업을 성취합시다.

대회장 불교텔레비전 대표 김태웅
전국승회공연 봉행위원장 윤지원

- 작사 윤지원
- 작곡 변규백
- 지휘 변규만
- 합창 삼보합창단, 도선사합창단, 봉은사합창단, 성보사합창단
- 연주 삼보국악관현악단, 삼보무용단, 춤지하
- 안무 민연옥
- Sop 정희정
- Bar 김성국

■ 때 : 1995년 (양) 4월 8일 (토) 오후 7시
■ 곳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주최 : 불교텔레비전, 조계종삼보사
■ 주관 : 삼보합창단
■ 후원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조계종 총무원, 은평불교사원 연합회, 한국일보사, 불교신문, 불교방송
● 공연문의 : 삼보사(02)352-6406~7

대한불교 조계종 삼보사